

# 사이버불링 경향성 진단도구 개발

윤미선<sup>†</sup> · 김명주<sup>††</sup> · 박정호<sup>†††</sup>

##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사이버불링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사이버불링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최종 판별 문항을 추출함으로써 예비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이후 완성된 평가도구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 내용구성타당도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타당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이 평가도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사이버불링,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불링 경향성, 인터넷 윤리

## Developing an evaluation tool to measure the tendency of cyber bullying

Mi-Sun Yoon<sup>†</sup> · Myuhng-Joo Kim<sup>††</sup> · Jung-Ho Park<sup>†††</sup>

### ABSTRACT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a valid evaluation tool which has reliability to measure the tendency of cyber bullying that is on the increase recently. After setting up the concept of cyber bullying and exploring its factors by reference to advanced research, we developed the draft tool through modifying by the expert group.

By conducting several surveys using this evaluation tool, we have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ur tool. And we also have developed an evaluation tool to measure its tendency.

As a result, the complementary evaluation tool of cyber-bullying tendency was proposed with more advanced and accurate test.

**Keywords** : Cyber Bullying, Cyber Harassment, Cyber Bullying Tendency, Internet Ethics

<sup>†</sup> 정 회 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sup>††</sup> 정 회 원: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sup>†††</sup> 정 회 원: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4년 10월 13일, 심사완료: 2014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15년 3월 24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서울시가 2013년 서울시 청소년(초4~고2) 4,998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각각 3.5%, 3.7%로 나타난 바 있다[1]. 또한, 2013년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사이버불링 경험이 있었으며,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 인원 중 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

뿐만 아니라 정보화진흥원에서 2013년 개최한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의 발표 결과,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생은 28.5%, 중학생은 43.7% 이상으로 조사되었다[3].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중·고교생 4,000명 중 19.4%가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명 중 1명(52.2%)은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사이버불링의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윤리에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 현황 및 실태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문적인 접근과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5].

게다가 사이버불링에 대해 측정할만한 세분화된 평가도구는 제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국내에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핵심 요인 도출과 구체적인 진단 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및 연구 목표

국외의 경우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연구는 사이버불링 현황, 사이버불링과 전통적인 불링의 관계

성, 사이버불링 평가도구와 관련한 연구 등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특히, Berne 외 8인이 제시한 ‘사이버불링 평가 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 출판된 사이버불링 관련 도구(설문, 평가도구 등) 636개 중 44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사이버불링과 피해 설문(Cyb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Questionnaire), 사이버불링 척도(Cyberbullying Scale (CS)), 유럽 사이버 폭력 연구 프로젝트(European Cyberbullying Research Project (ECRP))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도구에서만 신뢰도(일관성)를 보고하였고, 24개의 도구에서만 타당도를 보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합의의 부족, 사이버불링 요인 분석에 의해 도출된 하위 척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하면서, 사이버불링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다수 개발되었지만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가 많지 않은 것을 사이버불링 도구의 문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6].

한편 Topcu와 Erdur-Baker의 ‘사이버 폭력 목록에 대한 개정 :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에서는 13~21세, 339명(여자 220명, 남자 117명, 무명 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의 목록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심리 특성들을 조사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나에게 일어났었다’라는 피해 경험 18개 질문과 사이버불링 가해를 측정하기 위한 ‘나는 했다’라는 가해 경험 16개 질문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 경험을 조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사이버불링 평가도구와 관련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사이버불링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정의하였으며, 사이버불링의 경험뿐만 아니라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현황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외 연구는 선행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가해 요인을 분석하여 사이버불링을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경향성 측정과 이와 관련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3 용어 정의

1.3.1 사이버불링

Belsey는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문자, 채팅방, 휴대 전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8].

Kowalski와 Limber에 의하면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인스턴스 메시지(IM), 온라인 채팅, 휴대 전화를 통해 보내지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통한 온라인 소셜 학대(Online Social Cruelty) 또는 전자 괴롭힘(Electronic Bullying)을 의미한다[9].

국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따돌림<sup>1)</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10].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의 전반적인 괴롭힘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돌림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전자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상의 괴롭힘’으로 정의하였다.

1.3.2 사이버불링 유형

사이버불링 유형은 전통적으로 Olweus의 분류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는 1990년대까지 언어적 불링, 비언어적 불링, 심리적 불링의 세 가지로 나누는 분류법을 사용하다가, 불링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범주를 다시 세분화하여 언어적 불링, 비언어적 불링, 신체적 불링, 관계적 불링, 사이버불링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9]. 또 다른 구분은 Willard에 의한 구분으로 <표 1>과 같이 사이버불링의 가해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였다[12].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사이버 왕따)의 범주 내에서 분류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소외와 배척)’의 6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1> Willard의 사이버불링 유형

세부 유형	정의
플레이밍 (Flaming)	화나게 하거나, 무례한 비방 내용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것
괴롭힘 (Harassment)	불쾌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사이버 스토킹 (Cyberstalking)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및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의 송신행위를 지속하는 것
헐뜯기 (Denigration)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 허위 또는 잔인한 내용의 루머나 가십거리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
위장하기 (Impersonation)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교우관계에 손해를 입히거나, 곤란을 겪게 하는 것
아웃팅과 속임수 (Outing/Trickery)	공유하고 싶지 않은 예민하거나 창피한 사적 정보가 의도적으로 폭로되는 것(타인에 의한 동성애 폭로)
소외 (Exclusion)	온라인 그룹에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배제시키는 것

1.3.3 사이버불링 행위자 분류

Olweus는 행위자를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겸 피해자’로 분류하며, Coloroso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로 분류하였다[9]. Burroughs와 Olweus는 ‘가해자, 추종자, 지지자, 소극적 지지자(잠재적 가해자), 구경꾼, 잠재적 방어자, 방어자, 피해자’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14].

사이버불링의 일종인 ‘네트 이지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피해자, 가해자, 관중, 방관자로 분류하기도 하였다[15].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지지자, 방관자(잠재적 가해자/지지자/피해자) 등의 행위자를 가해 경향을 구분하기 위한 행위자로 정의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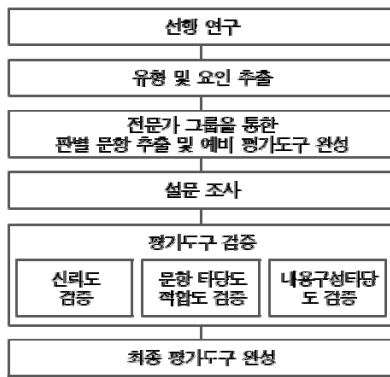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및 과정

2.1 연구 대상 및 과정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7월 1일~7월 30일까

지 초등학생, 중학생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초등학생 130명, 중학생 143명(13세~14세<sup>2)</sup>), 총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모집단은 기존에 수집된 정보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조사 방법은 해당 학교로부터 설문지를 우편송부 받아 분석하였으며, 사이버불링 가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 가해 요인을 분석하여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사이버불링 경향 척도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질적 연구와 평가도구 검증이라는 양적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이버불링 평가도구의 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평가도구 개발 과정

### 2.1.1 평가도구 개발

먼저 사이버불링의 가해, 지지, 방관에 관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는 기초 단계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여러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의 변인들을 추출한 후,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위장, 사이버 따돌림’ 등 각 범주 행위에 대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를 다시 초등학교 교사 2인, 대학교수 2인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기존의 사이버불링 진단범주 뿐만 아니라 경향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 정당화, 관계성, 윤리태도의 범주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9개 범주로 사이버불링 가해 여부와 그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sup>3)</sup>. 또한 중요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고,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수정하여 최종 판별 문항 32문항을 추출함으로써 예비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평가도구의 범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사이버불링 평가도구의 범주

범주	코드	문항수
사이버 모욕	M	4
사이버 스토킹	S	4
사이버 명예훼손	H	4
사이버 성폭력	V	4
사이버 위장	W	4
사이버 따돌림	D	4
심리 정당화	P	4
관계성*	K	1
윤리태도*	Y	3
<b>전체</b>		<b>32개</b>

\*는 역채점 문항이 포함된 범주

다음 단계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평가도구 검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 추출 및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타당도를 분석하여 평가도구를 검증함으로써 최종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 2.1.2 평가도구 검증

사이버불링 경향성 평가도구에 대한 검증은 신뢰도, 문항구성 타당도 및 적합도, 내용구성타당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분석도구와 분석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은 평가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문항의 내적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 Reliability)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2.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문항 삭제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들을 기준으로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2)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 검증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 검증은 문항에 대한 응

답과 피험자 응답에 대한 기대도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각 문항이 얼마나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IRT)에 잘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피험자와 문항의 변별도, 문항반응 척도의 적합성, 문항 측정치 분포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문항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Rasch 모형에 기반한 WINSTEPS 3.81(Winstep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3) 내용구성타당도 검증

내용구성타당도 검증은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구성이 타당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관련된 변수들을 공통의 요인으로 분류해 봄으로써, 문항의 범주에 대해 검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2.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문항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을 실시하였다.

3. 검증 및 분석

3.1 기술통계

평가도구의 범주별 기술통계 값은 <표 3>과 같다.

평균이 가장 낮은 범주는 사이버 성폭력이었으며,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심리 정당화이었다.

표준편차는 대부분 크게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모집단 내의 지역이 다른 두 그룹 간 평균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 그룹 내의 피험자 간 점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집단의 그룹 간, 개인 간 사이버불링 경향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3> 범주별 기술통계

범주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이버 모욕	1.00	4.25	1.9293	.66132
사이버 스토킹	1.00	3.75	1.6415	.64776
사이버 명예훼손	1.00	4.25	1.6705	.59749
사이버 성폭력	1.00	3.50	1.4241	.58637
사이버 위장	1.00	4.00	1.6996	.66006
사이버 따돌림	1.00	3.75	2.0775	.59977
심리 정당화	1.00	4.50	2.1880	.72947
관계성	1.00	5.00	2.1899	.91612
윤리태도	1.00	4.00	1.8824	.64387

\*N=258

3.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모집단(13세~14세, 263명, N=258<sup>4)</sup>)을 대상으로 총 32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 Cronbach α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해당문항 삭제시 Cronbach α	문항	해당문항 삭제시 Cronbach α
M1	.912	W1	.912
M2	.914	W2	.913
M3	.914	W3	.915
M4	.915	W4	.913
S1	.913	D1	.913
S2	.914	D2	.913
S3	.913	D3	.913
S4	.912	D4	.924
H1	.913	P1	.918
H2	.913	P2	.916
H3	.914	P3	.914
H4	.914	P4	.916
V1	.914	K1	.920
V2	.914	Y1	.914
V3	.914	Y2	.924
V4	.914	Y3	.915
전체		.917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계수가 0.7 이상이면 평가도구의 신뢰도가 양호하고, 0.8~1.0 사이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평가도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0.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 삭제시 전체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문항은 3개 문항으로(사이버 따돌림 D4, 관계성 K1, 윤리태도 Y2),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

다(<표 4>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는 문항 간 내적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문항 D4, K1, Y2를 제외한 경우 Cronbach  $\alpha$  신뢰도<sup>5)</sup>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신뢰도 통계

신뢰도 통계	
Cronbach $\alpha$	항목의 N
.934	29

### 3.3 문항타당도 및 적합도 검증

#### 3.3.1 문항적합도 검증

문항적합도 검증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내적합도(Infit MNSQ)와 외적합도(Outfit MNSQ)는 적합도 통계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내적합도는 극단적인 반응의 영향을 축소화하여 계산하고 외적합도는 극단적인 반응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주로 내적합도가 부적합 문항을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특정 문항의 점수와 피험자 총점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점이연 측정상관계수(PTMEA Correlation) 지수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문항적합도를 판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도와 외적합도가 0.5~1.5 사이이면서 점이연 측정상관계수는 0.3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적합한 문항으로 판별하였다. 즉, 내적합도와 외적합도 값이 0.5~1.5 범위에서 벗어나고 점이연 측정 상관계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내적합도 값이 1.5 이상이면서 표준화값인 ZSTD 값이 2 보다 큰 경우에도 부적합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평가 문항 중 부적합 문항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문항적합도 분석 결과, 3개의 문항(D4, K1, Y2)이 적합도가 떨어지는 부적합 문항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제외한 모든 문항의 내적합도와 외적합도 지수는 0.5~1.5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점이연 측정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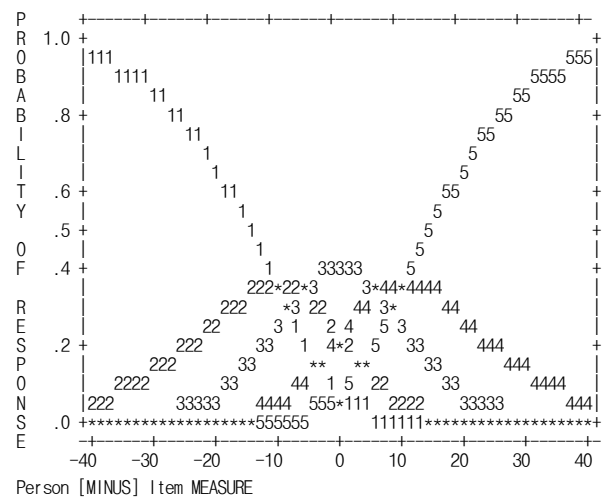
수의 값도 모두 0.3 이상을 만족시켜 대부분의 문항이 문항반응이론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32개 평가 문항 중 총 29개의 문항이 문항반응이론의 적합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3.3.2 문항반응 척도의 적합성

평가도구의 리커트 척도가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WINSTE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반응범주곡선(Item Response Category Curves)을 분석하였다.

평가도구의 대부분 문항은 <그림 2>과 같이 범주곡선의 경계모수(Threshold)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같은 간격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점 척도에서 4점 또는 3점 척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CATEGORY PROBABILITIES: MODES - Structure measures at intersections



<그림 2> 문항반응범주곡선

#### 3.3.3 문항측정치 분포

피험자 수준과 문항 난이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Rasch 모형에 의한 피험자-문항 간의 분포도(Person-Item map)를 분석하였다. <그림 3> 문항측정치 분포도에서, 좌측은 피험자, 우측은 문항의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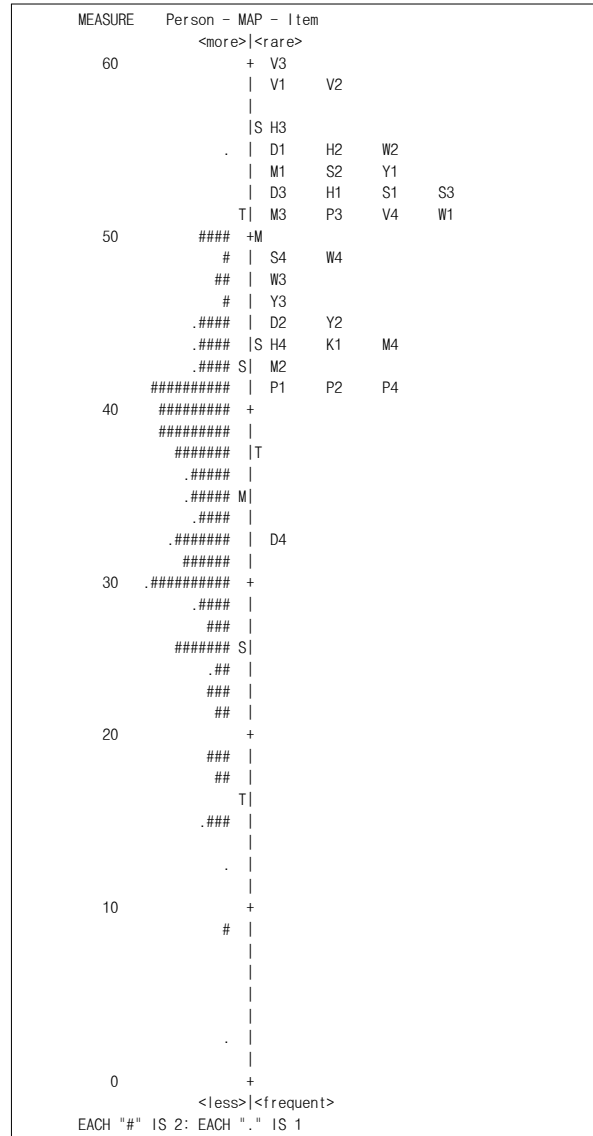
수직 좌표의 'M'은 평균(추정치), 'S'와 'T'는 각각 평균으로부터 1, 2 표준편차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분포도에서 좌측의 피험자 분포는 측정치가 높

을수록 가해 경향이 높은 피험자를 의미하며, 우측의 문항 분포는 측정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즉, 문항 분포에서 측정치가 높은 것은 그만큼 피험자의 가해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문항이라는 의미이다.

문항 분포에서 가해 경향이 낮게 나타난 범주와 문항은 사이버 성폭력 V1(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요청하거나 댓글, 메시지 등을 남긴 적이 있다), V2(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음란한 영상, 사진, 문자, 댓글, 메시지 등을 남긴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V3(누군가 남긴 음란한 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 같다)이었다. 가해 경향이 높게 나타난 범주와 문항은 심리 정당화 P1(채팅방, 댓글, SNS 등을 통해 불쾌한 기분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2(인터넷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괴롭힘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P4(다른 친구가 채팅방, 댓글 등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나 어른(선배, 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와 사이버 따돌림 D4(다른 친구들이 특정 친구를 채팅방에서 무시하거나 따돌릴 때 끼어들지 않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D4 문항의 경우 신뢰도 검증과 문항적합도 검증에서 부적합 문항으로 판별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피험자 분포는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피험자의 분포에 비해 문항 난이도 분포의 측정치는 높게 나타나, 문항의 난이도가 피험자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문항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 피험자-문항 간의 분포도 (Person-Item map)

<표 6> 문항적합도 검증 결과

ENTRY NUMBER	TOTAL SCORE	TOTAL COUNT	MEASURE	MODEL S.E.	INFIT		OUTFIT		PTMEASURE-A		EXACT	MATCH	ITEM
					MNSQ	ZSTD	MNSQ	ZSTD	CORR.	EXP.	OBS%	EXP%	
1	601	258	42.16	.69	.90	-1.2	.93	-.8	.57	.59	41.1	41.2	M2
2	421	258	52.40	.86	.70	-3.3	.62	-3.4	.61	.48	67.8	54.8	S1
3	410	258	53.23	.88	.74	-2.7	.60	-3.5	.62	.46	71.7	56.7	S3
4	471	258	49.05	.78	.75	-2.9	.72	-2.8	.64	.52	62.8	49.0	S4
5	415	258	52.85	.87	.69	-3.4	.65	-3.0	.61	.47	70.5	55.8	H1
6	521	258	46.19	.73	1.23	2.4	1.39	3.5	.49	.55	44.2	44.6	Y3
7	543	258	45.02	.72	.85	-1.8	.83	-1.8	.64	.57	48.1	43.2	D2
8	611	258	41.68	.68	1.13	1.5	1.16	1.8	.51	.60	35.3	41.2	P2
9	560	258	44.16	.71	.86	-1.6	.86	-1.5	.60	.57	40.7	42.2	H4
10	426	258	52.03	.85	.67	-3.7	.60	-3.6	.65	.48	67.1	54.6	W1
11	349	258	58.95	1.08	.89	-.9	.61	-2.6	.55	.38	74.8	69.3	V1
12	337	258	60.45	1.15	.99	.0	.83	-.9	.50	.36	77.1	73.1	V3
13	425	258	52.11	.85	.89	-1.1	.88	-.9	.52	.48	59.7	54.6	P3
14	438	258	51.19	.83	1.04	.4	.98	-.1	.55	.49	60.1	52.9	V4
15	382	258	55.57	.95	.72	-2.7	.61	-3.0	.60	.43	69.8	60.5	H2
16	565	258	43.91	.71	1.43	4.5	2.01	8.2	.14	.58	38.0	42.4	K1
17	382	258	55.57	.95	.93	-.6	1.09	.7	.56	.43	70.5	60.5	W2
18	403	258	53.78	.90	.62	-4.1	.52	-4.2	.66	.46	71.3	57.4	M1
19	485	258	48.21	.77	1.23	2.4	1.76	5.7	.46	.53	53.9	46.5	W3
20	461	258	49.68	.79	.83	-1.9	.86	-1.3	.60	.51	64.7	50.2	W4
21	379	258	55.84	.96	.69	-3.0	.56	-3.5	.61	.43	74.0	60.7	D1
22	409	258	53.31	.88	.70	-3.2	.59	-3.6	.64	.46	70.5	56.7	D3
23	392	258	54.69	.92	1.10	1.0	1.15	1.1	.51	.44	65.5	59.0	Y1
24	613	258	41.59	.68	1.49	5.1	1.56	5.3	.46	.60	33.7	41.2	P1
25	544	258	44.97	.72	2.50	9.9	3.38	9.9	.10	.57	31.4	43.2	Y2
26	813	258	32.74	.66	2.06	9.9	2.23	9.9	.13	.64	26.7	37.2	D4
27	563	258	44.01	.71	1.06	.8	1.10	1.0	.53	.58	40.3	42.4	M4
28	609	258	41.78	.69	1.29	3.2	1.28	2.8	.51	.60	39.1	41.2	P4
29	347	257	59.03	1.09	.84	-1.3	.68	-2.0	.53	.38	72.4	69.4	V2
30	367	258	57.00	1.00	.72	-2.7	.63	-2.6	.58	.41	74.8	63.7	H3
31	424	258	52.18	.85	.84	-1.6	.78	-1.8	.58	.48	66.7	54.6	M3
32	392	258	54.69	.92	.96	-.3	1.02	.2	.53	.44	70.2	59.0	S2
MEAN	470.6	258.0	50.00	.84	1.01	-.1	1.05	.1			58.0	52.5	
S.D.	104.9	.2	6.29	.13	.40	3.5	.59	3.9			15.5	9.4	



3.4 내용구성타당도 검증

내용구성타당도는 평가도구가 어떠한 변인들로 구성되어있는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특히, 평가도구의 항목들이 범주와 그에 따른 세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용구성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요인분석은 측정 문항의 여러 변인들의 구조를 파악하여 공통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여러 변인들을 공통된 요인집단으로 묶는 과정이다. 이 과정으로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를 요약하게 하며, 불필요한 변인을 제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변인을 선별한다. 또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변인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문항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미리 검증된 29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3.4.1 요인분석 가능성 검증

요인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정치로 표본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으로 상관계수 행렬을 검증하였다(상관계수가 대각행렬이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

KMO 측도의 값은 0.8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지며(Kaiser, 1974), Bartlett 검정의 p 값은 0.05보다 작으면 대각행렬이 아닌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KMO 측도 값이 0.8 이상, Bartlett 검정 p 값이 0.05보다 작을 때 요인분석을 실시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평가도구의 전체 피험자 응답 문항을 검토한 결과, KMO 값은 .927, Bartlett 검정 값은  $p(.000) < 0.05$ 로 나타나, 평가도구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3.4.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을 독립적인 소수의

인공변수-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주성분 분석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의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회전의 방법으로 직교회전 중 Varimax 회전<sup>6)</sup>을 실행함으로써 요인간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가지는 요인이 5개로 분석되었다(제1요인 11.17, 제2요인 2.25, 제3요인 1.39, 제4요인 1.14, 제5요인 1.02). 전체 설명 변량은 5개 요인이 58.5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요인 17.59%, 제2요인 13.50%, 제3요인 10.74%, 제4요인 8.45%, 제5요인 8.23%)<sup>7)</sup>.

<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영역> 구성요인	문항 번호	구성 요소				
		I	II	III	IV	V
거부 의사 무시	S2	.738				
	H3	.734				
	D1	.709				
	V2	.697	.413			
	M3	.653				
	Y1	.609				
	W2	.565	.444			
	M1	.523				
	D3	.516				.429
S4	.405					
콘텐츠 유포	V3		.783			
	V1		.764			
	H2	.401	.600			
	V4		.580	.499		
	W1		.477			
	P3		.466			
	H1		.442			
괴롭힘 정당화	H4			.653		
	P1			.604		
	D2			.574		
	P2			.556		
	Y3			.546		
위장 협박	M4				.669	
	P4				.661	
	W4				.594	
	W3				.447	
모욕	S1		.434			.684
	S3		.405			.681
	M2					.604
고유값		11.17	2.25	1.39	1.14	1.02
전체변량(%)		17.59	13.50	10.74	8.45	8.23
회전누적변량(%)		17.59	31.09	41.83	50.28	58.51
-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a - a. 8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도구의 변수들은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9개 문항 중 7개의 문항은 두 개 요인에 동시에 적재되어 있어, 평가도구의 문항들에 대한

범주 및 관계 설정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결론 및 논의

### 4.1 결론

사이버불링 경향성 평가도구는 청소년 스스로 사이버불링의 가해 경향성을 평가해봄으로써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이버불링에 관한 조사에서는 예방 측면보다 현황 및 실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이버불링의 경향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도구의 적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검증을 통하여 보완된 최종 평가도구는 <표 8>과 같다.

연구 결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평가도구는 앞서 실시한 신뢰도 검증, 문항타당도 및 적합성 검증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 반면, 내용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서도 사이버불링 유형을 범주로 하는 평가 항목보다는 각 유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가해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 무시, 콘텐츠 유포, 괴롭힘 정당화, 위장 협박, 모욕’ 등의 범주로 새롭게 구분해볼 수 있음이 판별되었다.

문항타당도 검증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문항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문항의 응답 항목은 리커트 척도 보다는 3점 또는 4점 척도로의 변경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형태의 리커트 척도가 아닌, 빈도수를 질문하는 4점 척도로 수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데이터 통계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 중, 심리적 정당화 범주에 대한 응답 수치가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하위 변인간 관계 검증을 통하여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모집단 내 그룹 간, 피해자 개인 간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추후 다양한 집단의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 4.2 논의

최근 사이버불링과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등 심리적인 장애, 대인관계, 도덕성 등과 연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3]. Aoyama와 Terrill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자기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동료 관계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바 있다[15].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요인을 심리적, 관계적, 인성적 측면으로 확장시켜 분석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경향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적 연구로서,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도구를 사이버불링 경향성 진단의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하되, 사이버불링의 요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평가도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후 주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Campfield의 'Cyb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 6학년, 7학년에 해당한다. Ybarra와 Kimberly 연구에서는 10~17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서는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조사와 연구를 종합하여 13~14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 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실제로 교육관계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6].
- 4) 263개 답안 중 5개 답안을 제외하였다. 이는 부정확한 답안으로 빈 칸이 많거나 칸에서 벗어난 답안이 많은 경우였다.
- 5) Cronbach  $\alpha$ 와 더불어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CITC(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값이 0.3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평가도구의 항목들을 검증한 결과 CITC 값이 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6) Varimax 회전은 요인행렬의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변수와 요인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해석이 용이하여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Varimax 회전을 채택하였다.
- 7) 최소 40%의 설명 변량을 넘어야 요인 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Gorsuch, 1983).

<표 8> 최종 사이버불링 경향성 평가도구

사이버불링 경향성 검사(Cyber Bullying Tendency Test(CBTT))

※ 최근 3개월간에 해당하는 답에 체크하세요.

분류	문항	응답항목				
		전혀 없다	한두번	일주일에 여러번	한달에 여러번	
사이버 모욕	M1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				
	M2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김새, 집안, 성격 등에 대해 기분 나쁘게 놀려본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M3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 온라인 게임 등에서 놀림, 욕설, 비방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고 따라해 본 적이 있다.				
	M4	다른 사람의 생김새, 집안, 성격 등에 대해 놀림, 욕설, 비방이 섞인 댓글이나 메시지를 볼 때 모르는 척 하고 싶다.				
사이버 스토킹	S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긴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				
	S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그 사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계속해서 방문한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				
	S3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 인터넷 댓글 등을 남긴 적이 있다.				
	S3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쪽지나, 문자, 채팅, 댓글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H1	누군가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실이나 거짓을 온라인상에서 퍼뜨린 적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H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서비스(카카오톡, 라인 등),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H3	다른 사람에 대해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실이나 거짓,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퍼뜨릴 때 따라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자주 그렇게 하고 싶다.				
	H4	다른 사람에 대해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실이나 거짓,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퍼뜨릴 때 그냥 지켜보는 편이다.				
사이버 성폭력	V1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상대방이 싫어할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요청하거나 댓글, 메시지 등을 남긴 적이 있다.				
	V2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음란한 영상, 사진, 문자, 댓글, 메시지 등을 남긴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V3	누군가 남긴 음란한 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 같다.				
	V4	다른 친구가 음란한 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는 편이다.				
사이버 위장	W1	누군가를 놀려줄 생각으로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인척 해본 적이 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				
	W2	괴롭히고 싶은 사람의 계정(ID)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이나 비방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				
	W3	친구나 아는 사람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인척 할 때 도와준 적이 있거나, 도와주고 싶다.				
	W4	어떤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냥 있을 것 같다.				
사이버 따돌림	D1	채팅방(카카오톡, 라인 등)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해본 적이 있다.				
	D2	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팅(카카오톡, 라인 등)에 초대하여 공개적으로 괴롭혀본적(욕설, 비방, 따돌림)이 있다.				
	D3	친구가 다른 친구를 온라인 채팅방에서 따돌릴 때 함께 따돌려 본 적이 있다.				
심리 정당화	P1	채팅방, 댓글, SNS 등을 통해 불쾌한 기분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2	인터넷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괴롭힘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P3	다른 친구가 채팅방, 댓글 등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나 어른(선배, 부모님, 선생님 등)에게 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P4	인터넷상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나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다.				
윤리 태도	Y1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게임 아이템이나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Y2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것으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여성가족정책실 (2014). “서울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및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연구결과” 보도자료
- [2] 오세연, 광영길. (2013).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3] 정보화진흥원. (2013).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 [5]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 진상기. (2013). 컴퓨터교과 교육: 사이버불링 발생과 정보매체활용 간의 상관 분석-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5), 17-29.
- [6] S. Berne, A. Frisén, A. Schultze-Krumbholz, H. Scheithauer, K. Naruskov, P.Luik, C. Katzer, R. Erentaite, R. Zukauskiene. (2012). “Cyberbullying assessment instrument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ume 18, Issue 2, 320 - 334.
- [7] Çiğdem Topcu, Özgür Erdur-Bakera. (2010). “The Revised Cyber Bullying Inventory (RCBI):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ie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660 - 664.
- [8] Campbell, Marilyn A. (2005). “Cyber Bullying: An Old Problem in a New Guis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5(01), 68-76.
- [9] Robin M. Kowalski, Susan P. Limber, Patricia W. Agatston. (2012).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Blackwell Publishing. 19.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1]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정보문화 이슈리포트』 제13권 제1호, 23.
- [12] Willard, Nancy. (2006). *cyber bullying and cyberthreats*. Eugene, OR: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 [13] 서경원. (2006).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9(2), 201-228.
- [14] Coloroso, B. (2008).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NY: Harper Collins.
- [15] 일본 나라현청 사이트  
<http://www.pref.nara.jp/secure/39467/ijime.pdf>
- [1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 왕따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료집
- [17] Aoyama, Ikuko, Terrill F. Saxon. (2012). Differences Between Cyber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Internalizing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s. *GER Editorial Board Members*, 44.
- [18] Campfield, Delia Carroll. (2008). Cyb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ProQuest.
- [19]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308-1316.
- [20] Faris, Robert, and Diane Felmlee. (2011). “Social networks and aggression at the Wheatley school”. CNN Report.
- [21] 유상미, 김미량. (2011). 사이버 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모델의 제시와 검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1), 23-33.

### 윤 미 선



1998 서울여자대학교(이학사)  
2000 서울여자대학교(이학석사)  
2014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인터넷윤리, 미디어, 컴퓨터교육  
E-Mail: msyoon@swu.ac.kr

### 김 명 주



1986 서울대학교(공학사)  
1988 서울대학교(공학석사)  
1993 서울대학교(공학박사)  
2003, 2010 UPenn 객원연구원

1995년~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5년~현재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  
관심분야: 정보보호, 창의성, 인터넷윤리  
E-Mail: mjkim@swu.ac.kr

### 박 정 호



1980 성균관대학교  
1988 Osaka University(일본)  
1990 Osaka University(일본)  
1991~현재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09~현재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부회장  
2015~현재 한국정보통신윤리학회 회장  
2011.6. 근정포장(勤政褒章) 수상  
관심분야: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윤리, 컴퓨터공학  
E-Mail: jhpark@sunmoon.ac.kr